



조계종 교육원은 10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급 승가고시 현장 언론에 공개했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79명, 비구니 82명 등 총 161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2급 승가고시 면접 현장. 2급에 합격하면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한다.



논술고사를 마치고 진행된 면접고사 장면. 이날 면접위원은 비구와 비구니 스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 출가 20년, 법계 품수 시험 “떨리네요”

## 조계종 교육원 2급 승가고시 현장... 언론 최초 공개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용)이 10월 30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승가고시를 실시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 2급, 3급 승가고시는 10월 30일~11월 2일까지 4일간 치러졌다.

이에 교육원은 2급 승가고시 시험 현장과 면접 모습을 언론에 최초 공개했다. 올해 2급 승가고시에는 비구 81명, 비구니 85명 등 총 166명의 스님이 응시했으며, 이 중 비구 2명과 비구니 3명이 결시해 총 161명이 시험을 치렀다. 2급 고시는 출가한지 20년 이상 된 스님들이 볼 수 있다.

이날 고시는 오전 10시부터 논술로 진행된 필기고시부터 진행됐다. 하루 전날 입교한 스님들은 그간 공부한 내용을 최종 정리해 시험을 치렀다. 제 1고사장에서는 비구 스님들이 시험을 봤으며, 혜명 스님(불학연구소장)과 남정 스님(기회국장)이 감독위원을 맡았다. 제 2고사장에서도 정도 스님(교육부장)과 광전 스님(총무국장)이 감독위원을 맡고 비구니 스님들이 시험을 치렀다.

논술은 수행(선·교·율)과 전법·사찰운영으로 크게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원 사무국장 석중 스님은 “수행과 전법·사찰운영 분야에서 각각 사전에 6개의 예상 주제를 미리 공개했으며, 이 중 3개 문제가 출제됐고 응시자들은 그 중 택일해 2000자 이내로 논술하도록 했다”고 설명한다.

수행(선·교·율) 분야는 ①(육조단경)에 나타난 선 정신의 구현 ②조사선과 일상

수행 ③여래장사상과 선종의 성립 ④(화엄경) ‘십회향품’과 대승불교정신의 구현 ⑤ 대승계와 현대사회 ⑥ 현대사회의 승가상 등이 예시 문제로 올라왔다.

또 전법·사찰운영 분야에서는 ①사찰 재정확보와 공정한 관리 방안 ②지역사회에서 사찰과 주지의 역할 ③다종교사회의 종교 갈등 해소 방안 ④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법회의 형식과 내용의 제안 ⑤현대인의 생활문화(도시생활, 주5일 근무)에 맞는 전법포교 방안 ⑥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한 지역사회 역할과 포교 등이 예시로 포함됐다.

스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논술 시험에 응했다. 필기 고사를 마친 스님들은 6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면접 시험을 치렀다. 이번 2급 승가고시 면접시험은 비구니 스님들의 요청에 따라 비구와 비구니로 면접위원이 나뉘어 진행됐다. 비구 스님 면접위원으로는 지안 스님(고시위원장)을 비롯해 고시위원인 원철 스님, 보각 스님, 대전 스님, 재연 스님, 지현 스님, 본각 스님, 일운 스님 등이 참여했다. 비구니 스님은 지형 스님(청암사승가대학장), 진광 스님(운문사승가대학장) 진명 스님(전 문화부장) 행오 스님(동학사승가대학장) 등이 면접위원으로 나섰다.

필기고사는 종덕 대덕 이상의 교수 아사리 및 교육교역자 10명이 채점 하며, 면접 시험과 합쳐 총 300점 만점에 전체 합산 점수 180점 이상이 되어 합격한다. 단 필기고사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

리된다.

시험을 마친 동학사 승가대 교수 명오 스님의 표정은 밝았다. 제자들에게 합격발원 때까지 선을 받았다는 스님은 시험은 항상 떨리는 거 같다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시험을 보기로 마음 먹고 수행 이력을 정리하다 보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승가대서 소임을 맡고 있다보니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늘 미리 제출된 주제를 대책상 앞에 걸어 놓고 보면서 공부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이 가는 한 문제에 집중 했는데 그 문제는 안 나왔네요(웃음). 면접에서는 평소 가슴에 담고 있는 부처님 말씀에 대해 자신있게 얘기했지요.”

## 2급 총 161명, 3급은 435명 응시 10월 30일부터 한국문화연수원서 합격자는 주요 소임 자격 부여

명오 스님은 10년 전 1주일간 치러졌던 3급 승가고시에 비해 1박 2일은 짧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한다. 스님은 이어 “교육원 방침에 따라 어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도반들과 지난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물론 이렇게 회포를 풀다가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시험 준비를 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1박 2일은 좀 짧은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치렀던 3급 고시는 개방을 앞둔 화엄사 선방서 1주일간 진행돼 너무 신심이 났어요. 또 당시는 각 강원 특강 프로그램을 들으며

충분하게 연습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엔 시간이 짧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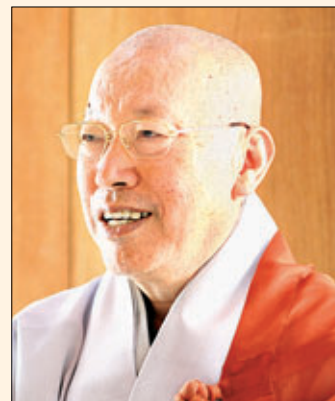
경남 고성 무위사 주지 명조 스님은 전법 포교 분야를 택했다. 스님은 오랫동안 글을 안 썼는데 논술 형태로 시험을 치르니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스님은 “94년도에 300여 도반들이 함께 계를 받았는데 이번에 참여율이 적어 안타까웠어요. 저는 종단이 늘 풍요롭게 될수록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승가고시가 많이 알려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합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3급 승가고시는 비구 267명, 비구니 168명 등 총 435명의 스님이 응시했다. 비구 1차 시험은 10월 31일에, 비구 2차는 11월 1일 치러졌으며 비구니 고시는 11월 2일에 각각 진행됐다. 한편,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대덕과 혜덕 법계를,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하면 종덕과 정덕 법계를 각각 품수하게 된다. 대덕과 혜덕 법계를 품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고시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과 칠증사, 중앙종무기부 부·실장, 종정예경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소임을 맡을 수 있다.

또한 종덕과 정덕 법계를 품수하면 말사 주지와 분사 국장, 중앙종무기부 국장, 교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소임을 맡을 수 있으며 상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결과발표는 2급과 3급 모두 11월 6일에 한다. 공주=정혜숙 기자

## “수행자도 자질 향상 위해선 고시 꼭 필요”

###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인터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스님들도 안목을 높여야 합니다. 불교가 이 시대에 현실과 사회적 실정을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고시를 통해 자각심을 일깨우고 전문화된 분야에 역량을 세워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사진)은 승가고시의 취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수행자가 무슨 고시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종단은 조직사회이고 교단 전체를 본다면 구성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고시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고시제도를 통해 승가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수행정신을 새롭게 해 수행자의 품위와 학력을 갖추고자 하는 차원에서 고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급 승가고시는 승남 20년 이상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주로 점검한다. “보통 고시를 기피하려는 경향도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다. 하지만 고시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이제 고시는 당연히 거쳐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승가고시는 스님들의 사회적 안목과 식견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스님은 강조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불합격자가 많이 나왔다는 여론이 있어 쉽게 출제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사회적인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한다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묻는 문제를 주로 출제했습니다. 필기시험인 논

술 채점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교차채점으로 공정성을 기했습니다”

고시제도가 정착화 되면서 고시에 임하는 스님들의 자세도 많이 달라지고 답안 작성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스님은 평가한다. “올해 채점을 해보니 답안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시제도가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고시를 치러 스님들 스스로도 의식이 새롭게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앞으로 스님들이 고시제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종교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의 식견도 높아져야 하고 지적 향상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높이도 높아져야죠. 결국 이런 식견을 넓히기 위한 방편으로 고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 정진 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거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남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 법 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